

□ 조정원 총장과 함께한 이틀

대학경영은 오케스트라 지휘와 같다

5월 23일 조정원 총장의 하루

AM 9:00 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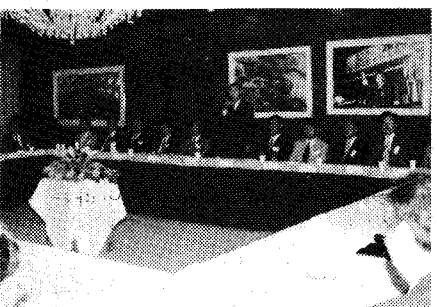
AM 10:50 아이템플 이음래사장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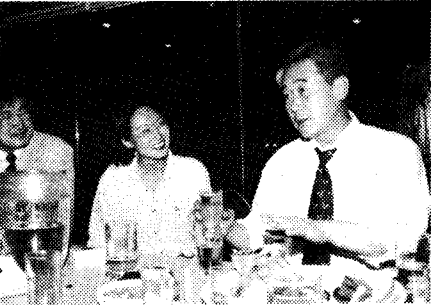
PM 2:10 서류결재 및 집무



PM 4:30 일본어학연수단 출국인사



PM 7:30 30대 우수교과 교장 초청 만찬



PM 9:00 동아시안 연구회 Home Coming Day 행사참가

PM 11:00 퇴근

산은 삶과 비슷하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 길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멈출 수 없다. 친구들과 함께 오르지만 결국에는 혼자남으며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순 있지만 대신 타줄 순 없다. 그래서 산은 사람을 겸허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

조정원 총장도 비슷한 이유로 산을 좋아한다. 자연앞에서는 누구나 왜소해지고, 힘들게 걷다보면 자기안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내다섯번은 산으로 향한다. 특히 휘영청 밝은 달이 북한산을 환히 비추는 보름 쯤에는 어김없이 야간산행이다.

화창한 토요일 정오. 차안에서 바라본 북한산에는 흰구름이 걸려 있었다. "저기서면 신선이 따로 있나?" 맑은 날씨 때문인지 조총장의 목소리가 한결 가볍다.

서둘러 걸음을 내딛었지만

소문대로 그의 걸음은

무척 빨랐다

약속장소인 도선사에서 교수, 직원 산악회회원들이 미리 도착해 있었다. 오늘 등산 코스는 도선사에서 출발해서 북한산장에서 점심을 먹고 정상인 백운대에 올랐다가 갈다고개를 거쳐 다시 도선사로 내려오는 것. 총 4시간 30분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12시 10분경 조총장이 앞장서자 1백 40여명이 그 뒤를 잇는다. 흙길과 바윗길이 번갈아 나타난다. 험악 숨이 차오르고 서늘할 날인데도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앞서가는 조총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념에 서둘러 걸음을 내딛지만 소문대로 조정원 총장 걸음은 무지하게 빨랐다. 북한산장까지는 따라갈만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는 몇걸음씩 뒤쳐지기 시작했다.

평만 보고 무아지경으로 얼마쯤 올랐을까? 와!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시야가 확트이면서 서울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조총장도 이 맛에 산행을 즐기는 것일까? 전망을 한참 보던 총장이 손을 들어 우리학교를 가르킨다. "저기저기 좀 검은 산앞에 저기가 우리학교야." 점박이처럼 작은 건물들 사이로 경희 의료원 꼭대기가 보일 듯 말 듯 했다.

정상인 백운대로 올라가는 길은 험

난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로프에 몸을 의지하면서 바위위를 한발한발 내딛는 순간들은 짜릿함의 연속이다. 그렇게 올라선 정상.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조총장은 벌써 저 앞에 가고 있다.

백운대. 늘 흰구름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나? 하지만 오늘 날씨는 멀리 인 천 앞바다가 내다보일 정도로 화창하다. "이런 날은 흔치 않은데. 시야가 참 넓지요." 조총장이 함께 오른 직원에게 한마디 건넨다.

올라올때는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 이렇게 힘들여 올라가나 싶었는데, 올라와보니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고, 내려갈 일이 태산같긴 하지만 천근같은 몸이 가벼워 졌다. 등산에 별 의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내려올 것을 왜 올라가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산에 오르고 보니 이 세상에 결국 제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그럴듯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의 순리다. 눈앞만 보고 가면 막다른 길이 나오고 너무 멀리 내다보지만 하던 발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산은 길을 열어주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미로가 되는 산. 매사에 자연스러움을 중요시 한다는 조총장에게 산은 일종의 자기수양인 것 같았다.

자연스러움은 조총장이 자녀들에게도 강조하는 덕목이다.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한 모습은 그가 즐겨듣는 제즈음악처럼 누구에게나 귀감을 주기 마련이므로 항상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라고 가르친다. 자연스러움의 철학은 그의 옷차림에서도 드러난다. 총장이 선호하는 색깔은 곤색과 검정색 회색 계열. 어두운 색깔은 넥타이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감이 있어 좋다.

자연스러움과

인연을 소중히 하는것은

조총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

한번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예의범절을 갖추는 것도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그리고 보니 그가 한 번 만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것은 단지 기억력이 좋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의 주량 또한 그를 아는 많은 사

람에게 회자되는 이야기 꺼리. 익히 알려진대로 그의 주량은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 등산 전날 있었던 동아시아 연구회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아들뻘 되는 청년들 못지 않은 술실력을 과시했다. 술자리에서 그는 격의없는 유머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다. 담배불을 찾는 조총장에게 한 학생이 라이터를 건네려하자 먼저 찾은 자신의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나는 불필

조총장은 격의없다
권위있는 사람이
그 권위에서
자유로운 모습은
상대방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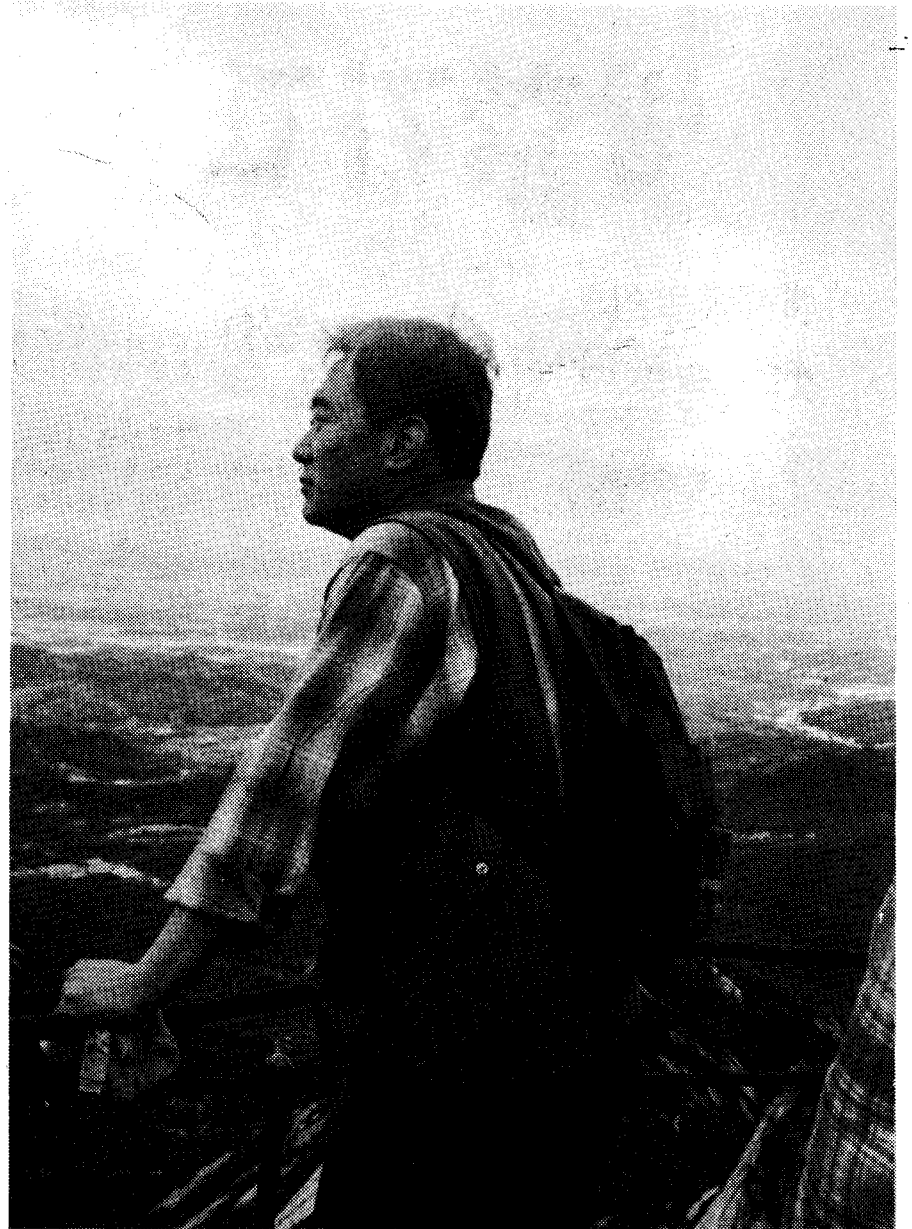
요한 사람이 아니야" 한다. 권위있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그 권위에서 자유로운 모습은 확실히 시원함과 편안함을 주는지 좌중은 곧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총장취임 이후 이런 자리(좋아하는 술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과 마실기회)는 흔치않다. 조총장은 정말정말 바쁘다. 취임 초기라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월별, 격주별, 주별로 공식, 비공식 회의가 꼭 짜여져 있기 때문에 빈틈이 거의 없다.

취재가 있던 지난 23일에도 점심시간 이후 잠깐의 집무시간이외에는 인터뷰 할 시간조차 여의치 않았다. 오전 9시부터 계속되는 결재와 보고, 회의와 방문객 맞이 스승의 날을 맞아 찾아온 제자들 인사까지. 조총장의 하루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가득차있다. 함께 하던 하루종일 조총장이 가장 자주 한 말도 "벌써 시간이 다됐나?" 혹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였다. 만나는 사람들은 한사람을 잠깐 만나하는 것 뿐이지만 그의 입장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색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셈이니 그럴만도하다.

그래서 외부 약속이 없을 때는 시간을 아끼려고 점심도 시켜먹는다. 그가 즐겨먹는 메뉴는 짜장면. 그외에도 매운탕, 곰탕, 설렁탕을 좋아한다. 특히 삼겹살에 소주 한잔은 조총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의 책상앞 한켠에는 지휘봉과 지휘대가 놓여져 있다. 처음 봤을 때 정치학 전공인 조총장 방에 웬 지휘대? 지휘도 하시나? 싶었지만 깊은 뜻은 다른데 있었다. 지휘대는 취임초기,



▲5월24일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 오른 조정원 총장

총장의 역할은 다양한 소리를 감지하고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마련한 것. 지휘자가 훌륭해야 훌륭한 화음이 만들어 지듯 총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조율할 때 그 힘이 하나로 뭉치지 않겠느냐며 시간날 때마다 지휘봉과 지휘대를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지휘대가 책

상위의 지구본과 함께 경희의 오늘과 내일을 상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훌륭한 지휘로 잘 단련된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나가듯이 경희가 훌륭한 전략으로 지구본 속의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물론 그렇게 되는데 지휘자와 연주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 다. (최수정 기자)

취재후기

멀리서 보기와 가까이 보기 그리고 부딪혀 보기

멀리서 보기와 가까이 보기는 다르다. 가까이 보기와 부딪혀 보기는 또 다르다. 사실 글 쓰는 사람입장에서 총장은 별로 좋은 대상이 아니다. 총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멀리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멀리서 보이는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보니 어떻게 더러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의 참 난감한 문제다. 난감하다는 데에는 이들과의 취재기간동안 내가 총장님을 총장이 아닌 내 취재원이자 한 인간으로서 정확히 관찰했느냐의 문제와 사람들이 내말을 얼마나 신뢰할까? 하는 문제가 얹혀져 있다. 그래서 다 른글을 쓸 때보다 자판의 DEL키를 많이 눌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부딪혀 보기'는 확실히 '가까이 보기' 보다 더 믿음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재하는 동안 되도록 부딪혀 느끼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보기도 하고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내가 총장이라면 어떻게?하고 입장을 바꾸어보기도 했다. 이글은 순간순간 나타났던 총장님의 반응과 그에 대한 내 느낌의 편린들이 모여 이루어 졌다. 개인적으로 '아는만큼 보고 본 만큼 느낀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많이 알았으면 짧은 기간이나마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아는것에 한해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도서관에 갈 때마다
마음줄이게 하는 수위아저씨
대의 연구비를 제일 많이
가져 오신다는 장진교수님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는 조정원 총장님
모두 다 님의 얼굴들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위 친구들을 추천하세요.
대학주보 인물 Focus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립니다.

• 대학주보는 인물 Focus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주위 친구나 교수님, 직원들 알려줘야 한다고 믿는 분들
추천해 주세요.
• 연락처 : 961-0095/0331)280-2055 대학주보 편집실